

JB
1735
BLANCPAIN
MANUFACTURE DE HAUTE HORLOGERIE

Ladybird



블랑팡 레이디B.

작게. 구형으로. 기계식으로.



레이디버드 컬렉션 70주년을 기념하며, 블랑팡은 1956년에 탄생한 ‘레이디버드 불릿(Ladybird Bullet)’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 역사적인 여성용 타임피스에는 스위스 워치메이킹 하우스를 이끈 최초의 여성 CEO인 베티 피슈테르(Betty Fiechter)의 리더십 아래 탄생했습니다. 레이디버드 불릿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작은 원형 무브먼트를 탑재하며 시계 제작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오늘날의 블랑팡 레이디 B는 이러한 블랑팡의 기계식 무브먼트 초소형화 기술의 유산을 이어갑니다. 쿼츠 시계를 결코 제작하지 않는다는 브랜드 철학 아래, 블랑팡 레이디 B에는 블랑팡 인하우스 칼리버 615가 탑재되었습니다. 이는 현대 자동 기계식 무브먼트 가운데 가장 작은 축에 속하는 블랑팡의 인하우스 칼리버입니다. 직경 19mm, 부피 2.9cm³에 불과한 구형 케이스와 손목을 두 번 감싸는 더블 투어 카프 레더 스트랩이 조화를 이루며, 블랑팡 레이디 B를 진정한 기계식 주얼리로 완성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과 18K 레드 골드 두 가지 버전으로 선보이는 블랑팡 레이디 B는 레이디버드 컬렉션의 새로운 장을 열어갑니다.

주요 포인트

- 블랑팡의 B: 레이디버드 컬렉션 탄생 70주년을 기념합니다.
- 블랑팡 레이디 B는 베티 피슈테르, 1950년대 디자인, 기계식 무브먼트 초소형화 기술이라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하나로 담아냅니다.
- 블랑팡 레이디 B는 스위스 워치메이킹 하우스를 이끈 최초의 여성 CEO인 베티 피슈테르가 1956년에 선보인 레이디버드 볼릿에서 직접적인 영감을 받았습니다.
- 레이디버드 볼릿은 1956년에 탄생한 레이디버드 컬렉션 최초의 타임피스입니다.
-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블랑팡은 무브먼트 초소형화 기술을 대표적인 워치메이킹 노하우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 브랜드 철학에 따라 블랑팡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퀵즈 시계를 제작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블랑팡 레이디 B 역시 오직 기계식 시계로 완성되었습니다.
- 1956년 선보인 칼리버 R52/R55는 11.85mm × 3.7mm 크기의 세계에서 가장 작은 양산형 원형 기계식 무브먼트였습니다. 블랑팡 레이디 B는 15.7mm × 3.9mm 크기의 블랑팡 매뉴팩처 칼리버 615를 탑재해, 오늘날 가장 작은 자동 기계식 무브먼트 가운데 하나로 그 유산을 이어갑니다.
- 블랑팡 레이디 B는 직경 19mm, 부피 2.9cm³의 독창적인 구형 케이스가 특징입니다.
- 손목을 두 번 감싸는 더블 투어 카프 레더 스트랩은 화이트, 라이트 베이지, 다크 베이지, 버건디, 후크시아 퍼플, 클래식 블루, 코랄 일곱 가지 컬러로 제공되며, 하나의 주얼리처럼 착용할 수 있습니다.
- 스트랩은 시계 뒷면의 전용 홈에 끼우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손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 블랑팡 레이디 B는 스테인리스 스틸과 18K 레드 골드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되며, 리미티드 에디션이 아닙니다. 레이디버드 컬렉션의 새로운 장을 여는 모델입니다.
- 2026년 9월 17일부터 블랑팡 부티크 및 공식 판매처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B는 구형 디자인(BUBBLE-FORM) 을 의미합니다.

1950년대 중반, 세상은 미래와 진보를 향한 낙관으로 가득했습니다. 원자력 시대(Atomic Age)를 거쳐 곧 우주 시대(Space Age)로 이어진 이 시기는 과학과 기술에 대한 기대가 건축, 산업 디자인, 자동차, 패션 등 시각 문화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직선 중심의 디자인은 점차 유기적인 곡선과 부드러운 입체감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956년, 에로 사리넨(Eero Saarinen)은 하나의 기둥만으로 이루어진 혁신적인 툰립 체어(Tulip Chair)를 디자인했으며, 동시에 뉴욕의 상징적인 TWA 플라이트 센터(TWA Flight Center)를 완성했습니다. 찰스 & 레이 임스(Charles & Ray Eames)는 유기적인 형태에 대한 탐구를 이어갔고, 이사무 노구치(Isamu Noguchi)는 조각과 오브제의 경계를 허무는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패션에서는 크리스토팔 발렌시아가(Cristobal Balenciaga)가 섹 드레스(Sack Dress, 1957)와 베이비 돌(Baby Doll, 1958)을 통해 여성 실루엣에 새로운 변화를 제시했습니다. 자동차 디자인에서는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의 파이어버드 III(Firebird III, 1958)가 버블 형태의 곡선을 통해 입체적인 볼륨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브뤼셀의 아토미움(Atomium, 1958)은 구(球)의 형태를 세계박람회의 상징으로 제시하며, 오늘날까지도 1950년대 디자인과 미래에 대한 낙관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창조적인 시대적 배경 속에서 레이디버드 불릿(Ladybird Bullet)이 탄생했습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블랑팡 레이디 B는 완벽한 구형 케이스를 통해 1950년대를 대표했던 유기적인 곡선미와 입체적인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이는 당시 디자인의 미학을 오늘날에 되살리는 동시에, 레이디버드 불릿이 지녔던 정신과 감성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블랑팡 레이디 B. 1956년 탄생한 아이디어의 현대적 재해석

블랑팡 레이디 B는 단순한 복각 모델이 아닙니다. 1956년에 탄생한 하나의 대담한 아이디어, 주얼리와 같은 크기의 오브제 안에 정교한 워치메이킹을 담아낸다는 철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레이디버드 볼릿(Ladybird Bullet)의 정신을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그 디자인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근본적인 철학을 오늘날의 감각으로 새롭게 구현했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시계 개발의 모든 과정에 반영되었습니다. 블랑팡 레이디 B는 블랑팡 매뉴팩처 칼리버 615를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며,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무브먼트의 기술적 사양을 기준으로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구형 케이스와 사파이어 크리스탈, 폴리시드 리호(Rehaut), 케이스를 관통하는 일체형 스트랩 구조, 그리고 방수 성능까지 모두 이 무브먼트를 전례 없는 크기의 케이스 안에 담아내기 위해 함께 개발되었습니다.

블랑팡 레이디 B는 전통적인 원형 시계도, 일반적인 셰이프드 워치(Shaped Watch)도 아닙니다. 스트랩은 러그나 별도의 고정 장치 없이 케이스를 직접 관통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하나의 완성된 형태를 이룹니다. 평면이 아닌 입체적인 조형미를 중심으로 디자인된 블랑팡 레이디 B는 손목 위에 착용하는 하나의 구형 기계식 오브제이자 조형 작품입니다.



단 한 번도 퀵츠를 선택하지 않은 브랜드

블랑팡 레이디 B는 살아 숨 쉽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블랑팡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퀵츠 시계를 제작한 적이 없습니다. 업계가 퀵츠 시대로 급격히 전환했던 1970년대의 퀵츠 위기 속에서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랑팡은 결코 퀵츠 시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1735년부터 이어져 온 이러한 선택은 전략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블랑팡이 만드는 모든 시계는 무엇보다도 기계식 시계입니다. 그렇기에 블랑팡 레이디 B 역시 오직 기계식 시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랑팡 레이디 B의 심장

블랑팡 레이디 B에 탑재된 블랑팡 매뉴팩처 칼리버 615는 직경 15.70mm, 두께 3.90mm의 초소형 자동 기계식 무브먼트입니다. 총 180개의 부품과 29개의 주얼, 38시간의 파워리저브를 갖추고 있으며, 3Hz(시간당 21,600회 진동)의 진동수로 작동합니다. 브리지에는 코트 드 제네브(Côtes de Genève) 장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케이스백의 구조는 로터의 회전 궤적에 맞춰 완전히 새롭게 설계되었습니다. 1995년 처음 선보인 매뉴팩처 칼리버 615는 이후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적 발전을 꾸준히 반영하며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진화를 통해 칼리버 615는 뛰어난 신뢰성과 견고함을 인정받는 블랑팡의 대표적인 매뉴팩처 무브먼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부피로 완성된 시계 : 2.9 CM³

전통적인 시계가 직경으로 정의된다면, 블랑팡 레이디 B는 부피로 정의됩니다. 2.9cm³. 워치메이킹에서는 다소 낮은 기준이지만, 평면 위에 그려진 시계가 아닌 입체적인 공간 속에서 탄생한 오브제에는 가장 적합한 척도입니다. 직경 19mm, 두께 13.2mm의 레이디 B는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매끈하게 다듬어진 조약돌처럼 자연스럽게 손안에 감깁니다. 그 형태는 본능적으로 손길을 이끌어냅니다. 손바닥에 올려놓는 순간, 로터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손끝에는 미세한 진동이 전해집니다. 그 감각은 이 작은 오브제 안에서 기계식 심장이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조용히 알려줍니다.

보이지 않는 복잡함

블랑팡 레이디 B는 더없이 단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케이스는 이 시계에서 가장 복잡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단 2.9cm³의 구형 케이스를 완성하기 위해 30장이 넘는 기술 도면이 필요했습니다. 무브먼트를 수용하기 위해 케이스는 상부와 하부, 두 개의 파트로 제작됩니다. 케이스백은 베젤보다 약간 작게 설계되어 위에서 바라보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과제는 이러한 구조 자체를 눈에 띄지 않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베젤과 케이스백이 만나는 경계는 입체적인 형태와 빛의 반사, 그리고 폴리싱을 통해 의도적으로 감춰졌습니다. 이처럼 작은 구형 케이스 전체를 하나의 연속된 표면처럼 완벽하게 폴리싱하는 것은 제작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결과 블랑팡 레이디 B는 하나의 덩어리를 깎아 만든 듯한 조형미를 보여줍니다. 실제 구조는 훨씬 복잡하지만, 겉으로는 하나의 완전한 형태만이 드러납니다.

스트랩이 만들어낸 새로운 구조

블랑팡 레이디 B에는 러그가 없습니다. 스트랩은 통금속 케이스를 관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0 × 1.6mm에 불과한 이 정교한 구조는 하나의 부품으로 가공되며, 내부는 마이크로 블라스트 처리되어 가죽 스트랩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모서리와 널링(knurling)은 카보송 공구(cabochon tools)를 사용해 전통적인 고급 워치메이킹 마감 기법으로 모두 수작업 마감되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스케일에서는 아주 작은 손길 하나까지도 완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가장 작은 디테일까지 이어지는 마감 기술

블랑팡 레이디 B는 스테인리스 스틸과 18K 레드 골드 버전 모두 케이스 전체를 장인의 손으로 마감합니다. 폴리싱, 새틴 브러싱, 마이크로 블라스트 등 각각의 마감 공정은 이미 조립이 완료된 시계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각 공정을 진행할 때마다 다른 부분은 모두 보호 처리한 후 다음 마감 작업을 진행합니다. 심지어 각인조차 레이저만으로 완성하지 않습니다. 블랑팡은 매뉴팩처가 요구하는 깊이와 선명함, 그리고 완성도 높은 마감을 구현하기 위해 기계식 커터를 사용해 정밀하게 가공합니다. 블랑팡 레이디 B는 위치메이킹에서 복잡함이 반드시 컴플리케이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단 2.9cm³의 작은 오브제 안에도 완벽함을 향한 놀라운 기술력이 담길 수 있습니다.

절제된 아름다움

다이얼은 극도의 순수함을 추구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과 18K 레드 골드 모델 모두 동일한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골드 인레이 기법을 통해 완성한 따뜻한 베이지 오팔린 컬러가 특징입니다. 의도적으로 다이아몬드 세팅을 배제함으로써 소재 자체의 아름다움과 빛의 변화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블랑팡의 전통에 따라 애플리케 인덱스는 모두 골드로 제작되었습니다. 1.82 × 0.39mm에 불과한 이 작은 인덱스는 레이디 B가 구현한 놀라운 초소형화 기술을 상징합니다. 윗면과 측면을 모두 폴리싱 처리해 은은하게 빛을 반사합니다. 절제된 디자인의 두 핸드 역시 순수함과 뛰어난 가독성이라는 철학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완전히 폴리싱된 리호(Rehaut)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빛을 반사하며 케이스의 곡선을 더욱 자연스럽게 이어주어, 마치 하나의 덩어리를 조각해 만든 완전한 구형 오브제처럼 보이게 합니다. 불필요한 장식은 없습니다. 시선을 의도적으로 끄는 요소도 없습니다. 다이얼에는 오직 시간과 블랑팡 로고만이 절제된 방식으로 자리합니다. 크라운에는 JB 이니셜이 새겨져 있으며, 이는 블랑팡의 역사에 보내는 또 하나의 오마주입니다.

주얼리처럼 착용하는 시계

모든 블랑팡 레이디 B에는 손목을 두 번 감싸는 더블 투어 카프 레더 스트랩이 함께 제공됩니다. 스트랩은 화이트, 라이트 베이지, 다크 베이지, 버건디, 클래식 블루, 후크시아 퍼플, 코랄의 일곱 가지 컬러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핀 버클(Pin Buckle)로 여미는 스트랩은 손목을 자연스럽게 감싸며, 블랑팡 레이디 B를 하나의 진정한 주얼리로 완성합니다. 테일러드 수트와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화이트 셔츠 소매 아래로 은은하게 드러나며, 브레이슬릿과 링 등 다양한 주얼리와 조화를 이루는 것은 물론,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블랑팡 레이디 B는 스테인리스 스틸과 18K 레드 골드 두 가지 버전으로 선보입니다.



B는 주얼리(BIJOU)를 의미합니다.

블랑팡 레이디 B는 단순한 시계도, 단순한 주얼리도 아닙니다. 레이디버드가 그랬던 것처럼, 블랑팡 레이디 B 역시 하나의 범주로 정의되기를 거부합니다. 블랑팡 레이디 B는 시계입니다. 동시에 주얼리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디자인 오브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함 뒤에는 1735년부터 블랑팡이 변함없이 지켜온 철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계는 무엇보다도 먼저 시계여야 한다는 것. 블랑팡 레이디 B의 가치는 한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케이스를 뒤덮은 다이아몬드 세팅도, 다이얼을 장식하는 자개도 없습니다. 블랑팡 레이디 B는 그것을 착용하는 사람, 그리고 그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줄 아는 사람에게만 자신을 드러냅니다. 절제된 외관 아래에는 하이 위치메이킹의 기준에 따라 정교하게 마감된 블랑팡의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블랑팡 레이디 B가 지닌 가장 큰 역설일지도 모릅니다.

- 현대적인 디자인을 갖추고 있지만, 그 뿌리는 블랑팡의 깊은 역사에 닿아 있습니다.
- 단순해 보이지만, 수십 년에 걸친 기술 혁신의 결과물입니다.
- 주얼리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기계식 시계라는 정체성을 지켜냅니다.

무엇보다도 블랑팡 레이디 B는 베티 피슈테르가 이러한 가치가 시대를 앞선 철학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깨닫고 있었던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탁월한 위치메이킹과 단순함, 그리고 아름다움은 결코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서로를 완성하는 가치입니다.

블랑팡 레이디 B는 블랑팡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점입니다. 어떤 시계는 역사를 기념합니다. 또 어떤 시계는 역사를 이어갑니다. 블랑팡 레이디 B는 바로 그 후자에 속합니다.



B는 베티(BETTY)를 의미합니다.

1912년, 열여섯 살의 베티 피슈테르(Betty Fiechter)는 스위스 쥐라 산맥의 빌레레(Villeret)에 위치한 블랑팡 공방에서 견습생으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1968년 은퇴할 때까지, 그녀는 블랑팡 매뉴팩처의 오너이자 스위스 최초의 여성 워치메이킹 매뉴팩처 대표로 자리매김하는 특별한 여정을 걸었습니다. 이는 여성에게 아직 참정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시대에 이룬 놀라운 업적이었습니다.

1932년, 블랑팡 가문의 7대이자 마지막 경영자인 프레데릭-에밀 블랑팡(Frederic-Emile Blancpain)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블랑팡은 창립 이후 처음으로 존속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가문 내에서 회사를 이어받을 후계자가 없었던 상황에서, 베티 피슈테르와 영입 총괄이었던 앙드레 레알(Andre Leal)은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회사를 인수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1933년, 베티 피슈테르는 블랑팡의 공동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당시 스위스 법률에 따라 창립 가문의 일원이 경영하지 않는 회사는 'Blancpain'이라는 이름만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매뉴팩처는 파브리크 도를로주리 레이빌 S.A.(Fabrique d'Horlogerie Rayville S.A.)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레이빌(Rayville)'은 블랑팡의 고향인 빌레레(Villeret)의 이름을 음성적으로 재배열해 만든 명칭입니다.

그러나 당시 스위스 워치메이킹 산업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대공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제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동업자였던 앙드레 레알마저 세상을 떠났고, 베티는 홀로 회사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여성에게 참정권조차 없었던 시대(스위스 여성 참정권은 1971년에야 인정되었습니다)에 그녀는 200명이 넘는 직원을 이끄는 스위스 최초의 여성 워치메이킹 매뉴팩처 오너이자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비전은 블랑팡의 국제적 입지를 확대하는 것이었으며, 특히 미국 시장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블랑팡은 그루엔(Gruen), 루시앙 피카르(Lucien Piccard), 엘진(Elgin), 해밀턴(Hamilton) 등 미국의 주요 시계 브랜드에 무브먼트를 공급하는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았으며, 동시에 블랑팡만의 기술력과 워치메이킹 노하우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특히 베티 피슈테르는 여성용 시계의 가능성을 누구보다 먼저 내다본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성용 타임피스 역시 남성용 시계와 마찬가지로 독창적인 기술력과 완성도 높은 기계식 설계를 갖춰야 한다고 믿었으며, 이를 블랑팡을 대표하는 핵심 분야로 발전시켰습니다. 1950년에는 조카인 장 자크 피슈테르(Jean-Jacques Fiechter)가 블랑팡에 합류했습니다. 베티는 그가 경영에 참여하기 전 1년 동안 회사의 모든 부서를 경험하도록 했으며, 이후 이사회에 합류시켰습니다. 베티의 풍부한 경험과 현실적인 통찰력, 그리고 장 자크의 호기심과 혁신적인 사고가 만나 이후 20여 년간 블랑팡의 방향을 함께 이끌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탄생시킨 두 개의 상징적인 타임피스는 오늘날에도 블랑팡을 대표합니다. 1953년의 피프티 패덤즈(Fifty Fathoms)와 1956년의 레이디버드(Ladybird)입니다.

매뉴팩처 밖에서 베티 피슈테르는 빌레레의 자택과 풀리(Pully)의 저택, 그리고 프랑스 리비에라의 카뉴쉬르메르(Cagnes-sur-Mer)에 위치한 빌라를 오가며 생활했습니다. 언제나 우아한 스타일을 유지했던 그녀는 천연 진주 목걸이와 브로치를 즐겨 착용했고, 니나 리치(Nina Ricci)의 향수 '레르 뒤 땅(L'Air du Temps)'을 자신의 시그니처 향수로 애용했습니다. 또한 조르주 루오(Georges Rouault), 오귀스트 르누아르(Auguste Renoir),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모리스 윌트릴로(Maurice Utrillo), 메리 카사트(Mary Cassatt), 르네 오베르조누아(René Auberjonois)의 작품들에 둘러싸여 생활했습니다.

베티 피슈테르는 결코 스스로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블랑팡 역시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수많은 위기의 순간마다 매뉴팩처를 지켜냈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시대에 여성용 기계식 시계의 가치를 믿고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절제된 품격, 본질에 대한 집념, 그리고 기계식 시계의 영원한 가치를 향한 확고한 신념이라는 블랑팡의 핵심 가치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빌레레 매뉴팩처의 직원들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도 깊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역사적인 블랑팡 공방을 내려다보는 언덕 위에는 그녀의 흉상이 세워져 있으며, 이는 그녀의 삶과 업적을 기리는 영원한 헌사로 남아 있습니다. 블랑팡 레이디 B는 바로 그녀가 남긴 유산입니다.



R52/R55, 세계에서 가장 작은 원형 무브먼트

1956년 레이디버드 볼릿(Ladybird Bullet)을 개발하며 블랑팡이 세운 목표는 대담했습니다. 단순히 세계에서 가장 작은 원형 기계식 무브먼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내구성까지 갖춘 무브먼트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초소형화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직경 11.85mm에 불과한 오리지널 레이디버드 칼리버는 두 가지 핵심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작은 크기와 뛰어난 견고함을 동시에 실현했습니다.

첫 번째 혁신은 기어 트레인에 다섯 번째 휠을 추가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계식 무브먼트는 배럴에서 초침 휠까지 네 개의 휠로 구성되지만, 베티 피슈테르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 이스케이프먼트에 전달되는 동력을 보다 정교하게 제어하는 동시에 무브먼트 전체 크기를 더욱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혁신은 밸런스 휠에 충격 방지 장치(Shock Protection)를 적용한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초소형 무브먼트는 공간 제약 때문에 이 장치를 생략했고, 이는 내구성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블랑팡은 이러한 충격 방지 시스템을 레이디버드 칼리버의 초소형 구조에 성공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손끝 위에 올려놓을 만큼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다른 소형 무브먼트와는 차원이 다른 견고함을 갖춘 무브먼트를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무브먼트가 R52/R55 칼리버(사이드 와인드)이며, 이후 R520/R550 칼리버(백 와인드)가 추가로 개발되었습니다. R520/R550은 와인딩 크라운을 시계 뒷면에 배치해 케이스 측면을 완전히 비워두었으며, 이를 통해 주얼리 디자이너들은 더욱 자유로운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R52/R55는 3시 방향의 전통적인 크라운을 유지했습니다. 두 칼리버 모두 3Hz의 진동수로 작동하며, 133개의 정밀 가공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부품은 2,000분의 1mm 수준의 정밀도로 제작 및 검사되었습니다. 당시 광고에서는 밸런스 휠을 '매우 무거운(Exceptionally Heavy)' 구조라고 소개했으며, 22개의 골드 밸런스 스크루를 적용해 뛰어난 안정성과 함께 40시간 이상의 파워리저브를 구현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R52/R55는 세계에서 양산된 원형 기계식 무브먼트 가운데 가장 작은 무브먼트라는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출시 당시 블랑팡은 레이디버드를 '기술이 만들어낸 기적(Technical Miracle)'이라고 소개했습니다. 1956년 바젤에서 열린 스위스 산업 박람회(Swiss Industries Fair)에서 처음 공개된 레이디버드는 "일반적인 크기의 시계와 동일한 수준의 정밀성과 신뢰성을 전례 없이 작은 공간 안에 구현한 시계"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R52/R55의 성공은 곧 블랑팡을 넘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오메가(Omega)와 론진(Longines)을 비롯한 여러 워치메이킹 하우스가 이 초소형 무브먼트를 자사의 시계에 채택했으며, 블랑팡 내부에서도 새로운 창작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극도로 작은 무브먼트는 디자이너들에게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자유를 선사했습니다. 골드 브레이슬릿 위치와 컵 위치, 오너멘털 스톤을 세팅한 뱅글 위치, 산호와 하드 스톤, 다이아몬드를 조합한 대담한 주얼리 위치, 링, 펜던트, 커프링크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R52/R55의 초소형화 기술은 디자이너들에게 전례 없는 창의적 자유를 제공했으며, 레이디버드를 주얼리 워치 디자인의 진정한 실험실로 만들었습니다.

블랑팡 아카이브에 특별히 보존되어 온 약 30점의 역사적인 작품들은 레이디버드의 세계를 조명하는 순회 전시를 통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6년 전시는 블랑팡 뉴욕 시티(9월 14-20일), 블랑팡 상하이 신텐디(9월 17-27일), 블랑팡 파리 - 포부르 생토노레(10월 15-24일), 도쿄 오모테산도 스탠바이 갤러리(10월 17-25일), 서울 유스퀘이크(11월 12-15일)에서 진행됩니다. 이후 2027년에도 추가 전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기술 사양

블랑팡 레이디 B
REF. 0064



무브먼트	블랑팡 매뉴팩처 칼리버 615
타입	오토매틱
직경	15.70mm
두께	3.90mm
부품 수	180개
주일	29개
진동수	시간당 21,600회 진동(3Hz)
파워리저브	38시간
마감	코트 드 제네브(Côtes de Genève)
밸런스 스프링	실리콘

케이스	폴리시드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18K 레드 골드
직경	19.00mm
두께	13.20mm
부피	2.9cm ³
방수 성능	30m
구조	케이스를 관통하는 스트랩 구조를 적용한 투피스 케이스

다이얼	오팔린
디자인	다이아몬드 세팅 미적용
인덱스	폴리시드 골드 아플리케 바 인덱스(레드 골드 모델은 레드 골드,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은 그레이 골드)
핸드	사·분 표시

스트랩	카프 레더
타입	더블 투어
폭	10mm
버클	핀 버클(Pin Buckle)
컬러	화이트, 베이지, 모카, 버건디, 블루, 코랄, 퍼플

한정판	아니요
가격	15,530,000원(스테인리스 스틸) / 23,700,000원(18K 레드 골드)

